



도,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본격화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 통해 방향 제시
군산 등 3개 시군 견고한 협력체계 구축... 개발 가속화
6개 분야 47개 협력 과제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실현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새만금 권역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의 상생발전과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3개 시군이 특별지자체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군 간 협력을 위한 공동 추진사업과 세부 실행 방안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명확한 추진 전략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결과를 3개 시군과 공유하며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힘을 모아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견고한 협력체계이다.

단합된 힘으로 새만금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행정 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새만금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며 이를 인근 지역으로 확

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도 3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맡는 방식을 채택해 지역 간 소통과 협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새만금 권역 공동협력 당위성과 공동발전 비전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의 필요성 △새만금 특별지자체 단계별 조직체계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6개 분야 47개 공동협력 사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약안 등이 제시됐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예산 확보에 대응하고, 협력을 통한 새만금의 세계 경쟁력 강화 등의 공동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상생과 공존'으로 지방시대 발전을 선도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라는 비전으로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구축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됐으며, 발굴된 공동협력 사무는 기획·행정 7개, 관광·체육 12개, 산업·경제 8개, 건설·교통 10개, 환경·안전 7개, 농업 3개 등 6개 분야 47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공동 협력과제를 통해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광역 인프라 구축에 대응하고, 관광·산업기반 등을 공동으로 활용해 새만금 권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활 기반 협력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규약안에는 특별지자체의 설치 목적, 명칭,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고 특별지자체의 사무, 의회·집행기관의 구성, 경비 부담 등도 명시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과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새만금 특



“윤석열 파면·국힘 해체”... 올해 마지막 주말도 타오른 촛불
통령의 탄핵 및 파면을 촉구하는 많은 시민들이 깃발과 손팻말을 흔들고 있다.

역 간 경계를 넘는 광역 인프라 구축에 대응하고, 관광·산업기반 등을 공동으로 활용해 새만금 권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활 기반 협력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규약안에는 특별지자체의 설치 목적, 명칭,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고 특별지자체의 사무, 의회·집행기관의 구성, 경비 부담 등도 명시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립과 운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에서는 새만금 특

별지자체 설치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사무, 조직, 법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에 2회(8월, 11월) 참여해, 새만금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현 가능 계획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연구 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새만금 권역 상생발전을 위한 군산·김제·부안 관계 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특별지자체를 통한 3개 시군의 협력·상생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다.

지난 28일 전주객사 풍패지과 앞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에서 윤석열 대

〈관련기사 3면·사진=뉴스1 제공〉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3개 시군에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해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군 주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향후 전북자치도는 3개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합동추진단이 운영되면 공동 추진사업 및 사무를 확정하고, 규약안을 만들어 3개 시군 의회에서 의결한 뒤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조속히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2036 올림픽 전북유치 기원’

도 제작 홍보영상
도민 눈길 사로잡아
응원 댓글 이벤트
오늘부터 진행키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제작·배포한 홍보 영상들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동시에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북돋아 한 몫하고 있다.

이번 홍보영상은 올림픽을 전북에 유치하는 당위성과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 총 2편(30초, 2분20초)으로 제작되었는데 도내 주요 옥외 전광판과 엘리베이터와 택시 모니터, 도 홈페이지와 공식 SNS채널 등을 통해 방영되어 도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개인 SNS를 활용한 홍보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숏폼영상도 제작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응원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30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올림픽 유치 기원 숏폼 영상을 시청한 후 해당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도민들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제공되며, 구체적인 참여 방법과 당첨자 발표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올림픽유치 본부장은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라는 새로운 도전, 위대한 여정에 나선만큼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강조하며, “성공적인 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해 이번 이벤트에도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를 기원하는 홍보영상에 관심과 지지 및 적극적인 ‘응원 댓글’ 이벤트 참여는 올림픽 유치에 대한 도민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전해져 내년 2월 대한체육회로부터 국내 개최 후보 도시로 결정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은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이 지난 27일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제작연대(조선 영조 31년, 1755년), 제작자(상정 외), 제작배경, 불상을 모신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성발원문이 남아 있고, 뛰어난 조각 양식 등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8세기 불교조각 연구에 중요한 자

고창 문수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고시

18세기 불교조각 연구 중요한 작품으로 인정

복장유물 일괄도 도 유형문화유산 지정돼

품으로 인정받았다.

석가여래좌상은 58.5cm 정도의 크기의 작은 크기로, 무릎 꿇고 상체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고, 특히 이복구

비와 손, 옷 주름 등에서 뛰어난 상징성(尙淨) 작품의 특징이 잘 표현됐다.

복장유물은 '발원문'과 '황초복자'



라는 보자기로 감싼 '후령통(候鈴筒)' 및 필사본과 목판본의 '다라니', 세 종류의 '법화경' 등 전적류 28

책 등이다.

나윤옥 고창군 문화예술과장은 “올해 고창 문수사는 이번 도 유형문화유산 지정과 함께 지난 7월 '고창 문수사 대웅전'이 보물로 승격돼 국가 지정유산 4점(보물 3, 천연기념물 1) 및 도지정유산 4점 등 다수의 국가 유산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더욱 더 국가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